## 경제 프리즘

### 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정비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단체표준 346종을 폐지하는 절차를 밟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정 민간표준인 단체표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1993년 단체표준 제도가 도입된 후 25년 만이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을 운용하는 140개 단체를 대상으로 제정된 지 오래돼 현재 기술 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거의 없는 표준에 대해 올해부터 적부확인 절차를 거쳐 개정 또는 폐지를 독려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등록단체와 협의해 32개 단체 346종의 단체표준에 대해 30일간 예고한 뒤 다음 달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 우체국알뜰폰 판매업체 선정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알뜰폰 위탁판매업체 13개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본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능력, 고객불만 처리능력, 재무상태 등을 평가해 세종텔레콤, 스마텔, 에넥스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신규업체 4개사를 포함한 13개 업체를 선정했다.

통신망별로는 SKT망 4개 업체, KT망 4개 업체, LGU+망 5개 업체다.

선정된 업체는 오는 10월 말까지 우본과 계약한 뒤 내년부터 3년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 현장방문 등에서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다.

### 이마트, 갈치 역대 최저가 판매

이마트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제주산 생갈치 1마리(대, 300g 내외)를 연중 최저가인 4,980원에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동기간의 생갈치 1마리 가격(6,780원)과 비교하면 약 27% 저렴하다. 작년 최저가였던 5,900원보다도 약 16% 싼 가격이다.

한 때 1마리당 가격이 1만2,000원(이마트 생갈치 大자기준)까지 치솟으며 '금갈치'라고 불렸던 갈치는 작년 제주 연근해의 수온이 높고 먹이자원이 풍부해지면서 어장이 형성, 어획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격이 40% 가량 저렴해졌다.

# 에어필립, 러시아 첫 국제선 취항 '청신호'

### 무안~블라디보스토크 추진 위해 현지 방문
### 9월까지 50인승 'ERJ-145' 2·3호기 도입
### 연해주 관광청장 "국제선 적극 지원" 밝혀

에어필립은 최근 엄일석 회장과 임직원으로 구성된 답사단이 '전남 무안~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취항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현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해주 관광청장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약속을 얻어냈다.

광주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에어필립이 국제선 첫 노선으로 추진 중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취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에어필립은 최근 엄일석 회장과 임직원으로 구성된 답사단이 '전남 무안~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취항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현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해주 관광청장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약속을 얻어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브라질 엠브라에르(Embraer)사에서 제작한 '50인승 ERJ-145' 1호기로 첫 상업운항에 나선 에어필립은 8월과 9월까지 2·3호기 도입을 마치고 국제선 취항에 나설 계획이다.

신생 소형항공사 에어필립은 관광성장률이 높다는 점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첫 번째 국제선 노선 유력 후보지로 구상하고 있다.

엄일석 회장과 답사단은 지난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속해있는 연해주청에서 연해주 도로교통국장, 국제협력국장, 관광청장, 등록청장 등 주요 인사들과 회의를 하고 '국제선 취항' 관련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엄 회장은 "2년 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 한국인들이 선호할 만한 관광지로 성장 가능성을 엿봤다"며 "50인승 항공기 추가 도입이 완료 되는 대로 블라디보스토크를 국제선 첫 취항지로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연해주 관광청 컨스탄틴 연해주 관광청장은 "연해주 주정부가 연해주와 대한민국 간의 새로운 노선 취항에 적극 찬성하며, 에어필립의 국제선 노선 취항 및 필립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기타 연관 사업에 충분한 협조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양쪽 관광흐름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과 연해주 간의 관광객 수는 2017년 대비 2018년 상반기 100%의 성장률을 보였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신문 6개사도 에어필립 답사단 기사를 내보내는 등 에어필립의 블라디보스토크 취항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러시아와 대한민국간관광산업이성장세를이어가고 있는가운데올해상반기까지연해주와 한국을 찾는 양국 관광객 수는 지난해 대비 100% 성장했다"며 "국제선 취항 외에도연해주주정부와합작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 주류업계 '저용량' 선점 경쟁

### '한입캔' 등 출시 잇따라

오비맥주는 최근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250㎖ 용량의 카스 '한입캔'을 출시했다.

집에서 혼자 술을 즐기는 '혼술족'과 '홈술족'이 늘면서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주류업계의 저용량 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의 시장 쟁탈전도 저도수에 이어 저용량 제품으로까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최근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250㎖ 용량의 카스 '한입캔'을 출시했다.

'한입캔'은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소용량 제품으로, 대용량 제품보다 빨리 차가워지고 마시는 동안 신선도가 유지돼 휴가지에서 즐기기 좋다고 오비맥주는 설명했다.

오비맥주는 벨기에 밀맥주 '호가든 로제'의 250㎖ 미니 사이즈 병 제품도 출시하며 소용량 맥주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도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 맥주의 250㎖ 소용량 캔을 선보였으며, 롯데아사히 역시 맥주 '아사히 슈퍼드라이'의 기존 소용량 제품 250㎖에 이어 더 작은 135㎖ 제품까지 출시했다.

이 같은 흐름은 양주와 와인 등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롯데주류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여 출고가를 1만 원대로 낮춘 500㎖ 용량의 '스카치블루 킹'을 선보였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조니워커 레드' 200㎖와 '조니워커 블랙' 200㎖ 제품을 내놨고, 페르노리카코리아도 200㎖ 용량의 '제임슨'을 출시했다. /서미애 기자

# 금호타이어, 2분기 영업손실 127억원

### 신차용 타이어 판매 부진·원화 강세 영향

금호타이어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27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올해 2분기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6%, 전 분기보다 25.7% 각각 감소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투입하는 원재료 부담은 상승했으나 광고 선전비와 인건비 등 판관비가 줄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2분기 매출액은 6,647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 줄었다.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된 뒤에도 불안정성이 남아 글로벌 신차용 타이어(OE) 판매가 부진했고, 원화 강세 영향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2분기 국내와 북미 시장은 수요 감소와 시장 경쟁 심화로 교체용 타이어(RE) 판매가 위축됐다.

중국 시장은 주요 완성차업체의 공급 물량 확대로 OE 판매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신뢰를 회복하고 판매 단가를 정상화해 수익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중국 시장에서 더블스타와의 시너지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홍콩 계열회사의 주식 2억7,359만1,000주를 현금출자를 통해 3,102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또 미국 자회사의 주식 88만2,190주를 현금 출자를 통해 1,000억원에 취득한다고 별도 공시했다.

홍콩 계열사와 미국 자회사 모두 취득 후 지분비율은 100%다. /서미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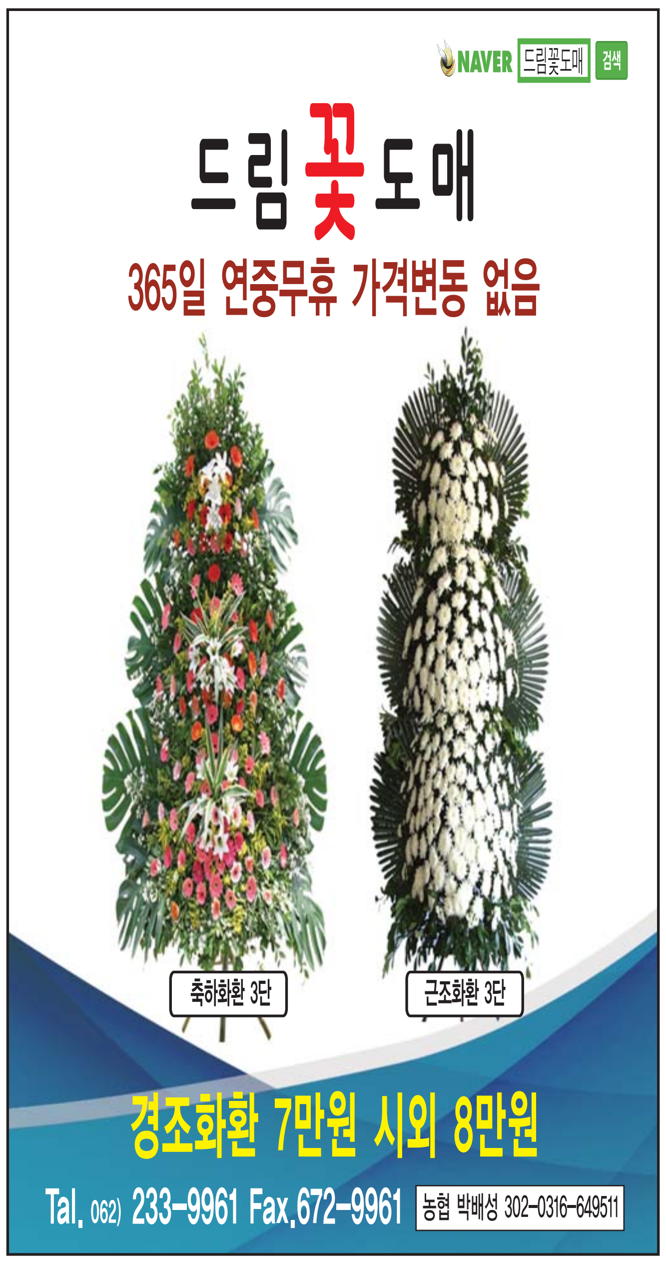
# 삼성전자-하만 카돈, 사운드바 출시

삼성전자는 명품 오디오 브랜드인 하만 카돈과 협력해 만든 사운드바를 처음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플래그십 사운드바 'HW-N950'은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탑재해 네 개의 스피커만으로 일반 가정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최대 채널인 7.1.4 음향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또 미국 DTS사가 개발한 360도 전방위 입체 사운드를 구현하는 'DTS:X' 기술을 적용했고 본체 측면에 스피커를 추가해 현장감을 강화했다.

HW-N950은 이달 말 한국과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유럽·호주·동남아·중남미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출고가 기준 가격은 180만원이다. /서미애 기자





오피스텔 급매합니다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전망좋음, 즉시 입주가
■ 관리비 저렴, 사무실전용
■ 2층, 38평, 9400만원
3층, 38평, 8400만원
7층, 53평, 1억1400만원
8층, 33평, 8400만원
문의. 010-6834-7400